

## '00 秋季學術大會 歡迎辭

공군참모차장 중장 이한호

존경하는 남궁 석 의원님!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한국 국방경영분석학회 회원과  
각 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3군 본부가 있는 이곳 계룡대에서 「한국 국방경영분석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금번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그동안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군을 망라한 국방분야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방분야 전문가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본이나 토지, 노동력 등 물질적 요소보다 지식이나 정보, 문화와 같은 무형의 지식자산들이 국가의 부와 운명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식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사회 전 분야가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분야는 “지식경영”을 통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

함으로써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반면 국방분야의 노력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인력과 물자로 구성된 거대 조직인 군 이야말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영마인드 접목은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국방임무 수행을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고찰 하는 노력은 “국방지식경영”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 학술대회에서 「21세기를 지향한 국방 지식경영」을 주제로 “군사정책·전략”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정보체계” 그리고 “운영분석” 등 국방경영의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발전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은 국방력을 새롭게 창출하는 의미있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학회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들은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당면한 국방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충실한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지식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 군이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방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사를 빛내주신 남궁 석 의원님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권태영 회장님, 발표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준 국방분야 전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학술대회가 알찬 결실을 거둔 가운데 성공리에 마쳐지기를 바라며 행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